



통권 112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1. 2. 1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장기구금 양심수 전향 무효 선언 및 송환 촉구’ 기자회견



2001년 2월 6일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3층에서는 <장기구금 양심수 전향 무효선언 및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장기수선생님들은
전향공작의 비인간성, 잔혹성, 불법성에 대해 고발하고 전향 무효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으로 조건없이 송환되어야 할 것을 선언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기대만큼 실망도 컸던 국민의 정부 3년 인권정책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대통령 대사면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개정 서두르지않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

최근 잇달아 보도된 집권여당대표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낸 상당수 소속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지도부의 개혁입법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앞서 말해 왔던 “대폭개정-회기안 처리” 방침을 뒤집으면서 정책 정당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책법안 마련의 당론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할 것이다. 현 정권의 이같은 개혁입법처리 미루기는 전반적 인권정책의 빈곤에 따른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집권 세들을 맞은 오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이 살아있고, 국정원·보안수사대 같은 폭압기구가 버티고 있으며 양심수가 여전히 갇혀있으며 수 백명의 청년학생들이 정치수배자로 쫓기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3년전 대선결과와 감격적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만년야당 당수로, 죽음을 넘나든 탄압받은 정치인으로, 그리고 잇달아 낙선의 쓴 잔을 마셔야 했던 대통령후보가 마침내 대선에서 승리하여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대통령 당선자의 첫 기자회견 내용을 유권자들은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 엄청난 압박을 받아온 당사자의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년만의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외세와 분단시대에서 자주와 통일세상으로, 그리하여 국가보안법도, 폭압기구와 양심수도 없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양심수 가족들이 새정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문민정권 5년간 양심수 6263명을 잡아 가두면서도 단 한 사람도 양심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석방조치도 없었던(취임때 사면은 전 정권때 구속된 양심수였음) 데 비해 새 대통령은 갇혀있는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면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개표실황을 지켜보았던 양심수 가족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4.19 묘소참배 길에 만나 뜨겁게 손을 잡고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었다.

오는 25일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3돌을 맞게 된다. 그러나 양심수가족들이 그렇게도 감격하고 축하했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서 버렸다. ‘인권대통령’ 이 끄는 ‘국민의 정부’ 3년의 인권정책은 계속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남북공동선언합의, 비전향장기수석방과 송환이라는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민주주의발전, 인권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취임과 함께 곧바로 없앨 것으로 기대했던 국가보안법은 ‘대폭개정’은 물론 개정시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기획부도 해체는커녕 이름만 바꾸어 수사권 완전삭제 여론에 반해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마치 온전히 보존한 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새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당·정 이견만 드러낸 채 법안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는 조건에서 양심수 문제해결이 있을 수는 없었다. 양심수 구속실태와 사면조치에 대한 몇가지 통계를 보기로 한다.

양심수 구속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새 정권출범 1년간 714명(국가보안법 관련 389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다. ‘문민정권’ 같은 기간 195명(국가보안법 105명)구속의 3.5배나 되고 있었다. 대통령취임

3들을 앞둔 2월 3일 현재 모두 1492명(국가보안법 808명)을 잡아가두어 '인권대통령'이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문민정권' 3년간 구속자 1589명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관련 776명보다 많은 숫자이다. 현정권도 김영삼정권과 다름없이 범민련·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간부와 대의원을 끊임없이 잡아 들였으며 북부노동자회, 부산 인제대 자주대오, 안양민주청년회, 전국학생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소위 영남위원회, 소위 울산대 자주대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위 과기대 자주대오, 소위 동서대 자주대오, 서울진보청년회, 소위 반미구국한양, 소위 민혁명, 소위 원광대 자주대오, 소위 광운대 자주대오 사건 등 학생·노동·청년단체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구성·가입 허물을 씌워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기 때문이다.

개혁과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를 내세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양심수사면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심수사면은 죄를 용서하는 사면이 아니다. 잘못된 법으로 잘못 집행된 피해를 바로 잡는 일이다. 양심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갖고 공동선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확신수이기도 하다. 비록 잘못된 실정법으로 구속되긴 했지만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한,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되었었기에 양심수사면은 바로 정의와 역사를 바로 잡는 수단이기도 했다.

1998년 3월13일에 있었던 대통령취임 경축사면에서 478명 양심수 가운데 15%인 74명만을 석방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에도 바로 양심수로 그 아픔을 경험했던 대통령의 취임사면이었기에 양심수전원석방을 기대했었지만 김영삼 정권출범 때(1993.3.6)의 514명가운데 28%인 144명 석방조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노태우정권 출범때의 281명을 석방하는 대사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 때 석방된 이른바 공안사범 64명, 계엄군법회의의 수형자 23명의 '시국사범'으로 분류된 194명의 석방내용은 양심수사면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기결 양심수 41명은 특별사면·특별복권, 수사중인 30명은 검찰에서 구속취소, 재판을 받고 있던 123명은 재판부

에서 구속취소하여 석방했었다. 또한 정치수배를 받고 있던 청년학생 등 61명은 모두가 아무 조건없이 수배해제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양심수사면은 그 뒤에도 답답하기만 했다. 일반 형사 피의자 319명이 석방된 98년 석탄절 사면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같은 해 광복절 사면은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도로 양심수석방의 발목을 잡으며 사면 의미마저 희석시켰다.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거센 반대여론으로 사실상 준법서약제가 실효성을 잃은 1999년에도 단 9명만이, 2000년 8.15에는 20명만을 석방했고, 2000년 연말엔 아예 양심수석방조치가 없었다.

지난 2월 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석방을 위한 정치수배농성단이 주관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다. 민중가수 류금신씨를 비롯하여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 천리마 등 노래패들이 기꺼이 달려와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노래로 말하고 있었다. 공연 사이사이에서는 이른바 민혁명 사건으로 8년 선고를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하영옥씨의 12살된 딸 정연이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와 1996년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으로 6년째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송영한씨의 어머니 홍동자님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어머니도 공연참가자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아직도 감옥엔 하영옥씨를 비롯한 양심수 96명이 갇혀 있고 송영한씨를 비롯한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청년학생들 230여명이 학교도, 가정에도 못가고 거리에서 쫓기고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미 노태우정권때의 전례도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이행하고 있으며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돌아오는 취임 세들을 맞아 70세 노인 라창순씨를 비롯한 양심수전원석방, 8년을 정치수배 받고있는 진재영씨 등 200여명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조치, 그리고 양심수였던 모든 출소한 사람에게 사면·복권할 것을 촉구한다.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나는 순간 과거로의 짧은 여행을 했다. 사람의 온기로 언제나 따뜻함이 흐르던 곳, 만남의 집.

햇볕 드는 창 앞에 앉아 언제나 뭔가를 열심히 읽고 계시던 이 종 선생님. 굵은 어깨로도 언제나 부지런하시고 미소가 따뜻하던 김인수 선생님. 건강한 청년같던 최하종 선생님.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리면 돋보기 너머

로 웃음을 보이시던 김석형선생님. 동지들을 돌보는 데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던 홍경선선생님. 그리고 최장기 양심수로 유명한 김선명 선생님, 한학에 밝으셨던 유운형 선생님, 맨 나중에 나오신 손성모, 신광수 선생님.

모두들 건강하신지...

문을 열고 들어간 낙성대 만남의 집은 그간 비어 있던 터라 썰렁했다. 사람없는 집처럼 금방 솔직하게 티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만남의 집은 또 다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분이 김영식 선생님.

김영식선생님은 1934년 강원도 이천군에서 태어났다. 첩첩산중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선생님의 유년기는 그야말로 빈궁하기 이를데 없었다. 동네 다 큰 처자들조차 속옷을 갖춰입기 힘들 지경이었다. 더군다나 일제 말기가 될수록 생활은 더욱 빈곤해져 갔다. 어머니가 겨우 누에를 길러 작은 농토를 마련하긴 했지만 좁체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곤궁한 생활을 하다 선생님은 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선생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문자를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서 조금 서당을 다녔으나 곧 그만두고 농사를 도와야 했던 선생님께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 쪽에선 해방되고 나서 인민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 애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파하고 나면 동네 처녀 총각들을 모아다 놓고 한글을 깨우쳐 주고, 또 밤이 되면 애

엄마들과 말만한 처녀들을 또 모아다 놓고 한글을 가르쳤으니까요.”

선생님은 자연스레 민청에 가입하게 되었다.

전쟁 전까지 농사만 지으며 생활하던 선생님은 그러나 전쟁이 나자 인민군에 입대했다.

“아이고, 나이가 어려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지원해 나가 바지 저고리만 입고 쫓아 다니느라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어리다고 저를 자꾸 뒤로 돌리는 바람에 그저저는 쌀을 저오거나 연락하는 일을 맡았지요.”

전쟁이 끝난 후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온 선생님은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 전쟁 후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집은 폭격으로 모두 부서져 내렸고, 얼마나 포탄을 쏟아 부었는지 마을 앞에 있던 호수는 포탄더미로 그 흔적을 잃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사람의 삶은 이어져 선생님은 결혼을 했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56년 제대 후 선생님은 ‘바다는 청년을 부른다’는 책을 보고 원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전쟁 내내 땅을 손으로 파고 들어가 생활하던 ‘기억에 질려’ 조금 생활의

터전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리의 추천을 받아 원산으로 간 선생님은 원산수산사업부에 들어가 타고난 근면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어려서부터 노동으로 뼈가 굵어진 선생님은 배타는 일도 수월하게 해 낼 수가 있었다. 평탄한 날들이었다.

넓디 넓은 바다로 나가 청년답게 힘찬 기상으로 일을 했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집에선 아내가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방안에선 점점 장난이 늘어나는 아들 현일리와 한참 말을 배워가는 딸 경자가 쫓고 까불며 다정히 놀고 있었다.

그러나 59년 당의 소환을 받아 통일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선생님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다. 당의 소환으로 연락원 일을 하던 선생님은 62년 울산 앞바다에서 체포되었다.

“접선장소에서 배를 대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배로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거죠. 조명탄을 쏘아올려 대낮처럼 밝은데, 우리는 정신이 없어 우선 막 배를 저어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배가 멈추는 거예요. 연료통이 총에 맞은 거예요.”

배를 포기하고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는데 노 젓는 자리를 바꾸다 그만 또 보트가 뒤집혔다. 당시 숨을 쉴 수 없던 선원들은 몸이 돌덩이가 되어 물로 자꾸 빠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겨우 겨우 뒤집힌 보트를 타고 손으로 노를 저어 육지에 도달한 연락원들은 철길을 따라 혹은 개울을 따라 밤새 도망을 쳐 한 민가에 도착했다.

그러나 민가 사람들은 이미 ‘공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밥을 요구하는 선생님일행을 알아보고 신고를 했다.

그곳에서 신장은 수류탄을 터트려 목숨을 끊었고, 장영락, 조창손 선생과 함께 김영식선생님은 체포되었다.

“아, 그때 진달래 꽃이 차암 잘 피었대요. 아주 기가 맥했어.”

그것이 선생님이 석방되는 88년까지 26년간 마지막으로 보게된 흐드러진 자연의 경관이었다. 아마 북에 가족을 두고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친 선생님에게 보낸 자연의 마지막 선물은 아니었을지.

62년 체포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분단된 조국이었고, 차디찬 회색 감옥이었다.

감옥에서의 고립과 참을 수 없는 고문.

“무슨 이유든 붙여 사람을 패는데,… 아이고, 진짜 살기분이 안 납니다. 차라리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요.”

“얼마나 고문이 대단한 것이었던지 제 옆에 있던 변치수선생은 고문후유증으로 어느날 코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드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전향.

“나는 조국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며 버텨 온 건데,, 이 악마들에게 꺾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향후에도 선생님은 석방되지 않은 채 15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전향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와 고문에 의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정권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소 후 선생님은 노동자로 목수로 채석꾼으로 막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세상에 던졌다.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앞으로 선생님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생활을 하실 예정이다. 그곳에서 여러 젊은 동지들과 정을 나누며 생활

을 하시다 북으로 가신 선생님들처럼 김영식 선생님 또한 북송되어야 한다. 선생님의 전향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1973년 광주 교도소 재소시 교회사 문흥호가 대필한 전향서에 강제로 날인한 바 있으나 그것은 강제를 못이겨 한 일이지 내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하에 좌익수 전원을 강제로라도 전향시킨다는 방침아래 인간이 감내 할 수 없는 온갖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강요했는데 무의무탁하고 배운바가 없는 나는 더욱 앞잡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는 이 북의 강원도 태생이라 남한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사람도 없어 감옥살이는 더욱 힘이 들었고, 서러움은 더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내복도 입지 못하고, 이불은 작아 다리가 나오고 양쪽이 들리어 냉방에서 추위는 더해만 같습니다. 책을 보고 싶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정좌하고 있어야 조금만 다리를 펴도 간수가 밖으로 불러내어 구두발로 무릎을 까곤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도 쓰고 싶어 바닥에 나무꼬챙이로 글쓰는 연습을 하다 걸리면 모두 빼앗기고 불러 나가 맞았습니다. 겨울에 감방이 너무 추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옷을 다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찬바람이 제일 센 계단 옆에 꿰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집 없고 연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끼리 넣어 놓고 다른 사람과 연계만 가지면 무조건 징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 1973년 8월 8일 일본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감옥 안에서는 혹독한 고문으로 강제 전향공작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진행된 강제 전향공작은 그야말로 산 사람을 잡는 것으로 인간이 이겨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좁은 감옥안에서 10 여 명씩 가두고 잠을 자기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온 몸을 때려 내 몸은 보기만해도 흉측했습니다. 강제전향을 위한 고문은 구타로 시작하여 온갖 고문을 다 하게 됩니다. 찬물 고문, 손바닥 고문, 원산폭

격, 엎어놓고 몽둥이로 때리기, 고문틀에 반듯이 눕히고 발을 밧줄로 묶고 손은 뒤로해서 수갑을 채우고 목에는 나무 막대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천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덮어 주전자의 물을 계속 붓는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입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없어 계속 몸부림치다 결국 숨을 쉬는데 그때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죽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온갖 고문에 결국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무과장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향입니다...

내가 직접 본 동지 중에 이러한 강제 전향공작에 못 이겨 자살한 사람은 김기호 동지와 신춘복 동지이며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변치수 동지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고문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괴로웠던 것은 바로 전향입니다.

분단된 조국과 강대국에 예측되었던 현실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먹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향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울며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도 죄책감 때문에 혼이 빠져 살았고 출소해서도 여전히 마냥가지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정의감 하나 뿐인데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버려지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강압에 의하여 치욕적인 전향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느껴 지난 1973년 강제 전향은 나의 의사가 아닌 고문에 의한 것이기에 전향취소 의사를 여기 명백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양심선언문 내용 중 일부)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고 현 화

지금 우리사회엔 200여명이 넘는 정치수배자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농성에 함께 한 이주연씨.

입춘이 지나 햇빛은 따스한 듯 했지만 아직 바람에 남아 있는 겨울의 찬기가 옷깃을 여미게 했다.

2월 9일, 지난 해 5월부터 명동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수배자 중 한 명인 이동진(26)군의 누나인 이주연(28)님을 명동성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명동성당 들머리 한 편엔 북파공작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고, 다른 한 편엔 모형감옥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농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주연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니 마침 이동진 군의 부모님이 같이 계시다가 동진군에게 건강을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고 친지분의 결혼식에 가셨다.

“부모님께서서는 동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젊으나 젊은 아이가 저렇게 할 일을 못하고 자유없이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으니...”

주연씨가 대신 부모님의 심정을 전해 주었다.

울산대 시절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주연씨는, 학교시절 많은 수배된 친구들을 보아왔고 그래서인지 동생인 동진씨가 수배된 것에 대해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자유롭게 열심히 활동해야 할 나이에 자유를 빼앗긴 채 “방바닥만 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언제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특히 동생이 힘들어 할 때는 그 안타까움이 더했다고 한다.

“동진이가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지낸

다 해도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힘든 거라면 저는 걱정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못하고 저렇게 있으니... 가끔 방바닥만 지고 있는 동생이 무기력해 보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동진씨가 수배자가 된 것은 동진씨가 한 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99년의 일이었다. 동진씨는 대학에 들어간 후 1학년 때부터 쪽 학생운동을 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수배가 특별히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잠은 잘 자는지, 굶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추운 날이면 어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동진씨는 고등학교시절 학교에서 풍물패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선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 후 대학에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남 2녀 중 장남이었던 동진씨는 원래 착하고 순진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밤에 화장실도 못가서 누나나 여동생을 깨워 화장실을 갈 정도로 여리고 겁많은 아이였다. 사춘기 시절에도 친구들과 싸움을 한 적이 없었고 누구를 때리기보단 자신이 맞고 다니는 그런 착한 아이였다고 한다. 언제나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했으며 뭐가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뭘 정리하고 살 수 있는 형편

도 못되니까 그런 성격도 많이 퇴색한 거 같아요....”

말을 흐리는 주연씨의 표정엔 아련한 서글픔이 묻어있었다.

동진씨가 수배자가 되자 모든 가족들이 힘들었지

만 특히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은 현직 경찰이신 아버님이셨다. 당시 울산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달리셔야만 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그렇게 수배자가 되면 공직, 특히 경찰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시절이 좋아져서인지 동진씨 아버지께선 일을 그만두시지는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남다른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

“동진이에 대한 아버님의 유일한 바램이라면 그저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연씨는 전해 주었다.

“한 때는 수배자 가족 모임에도 나갔어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수배상태를 수수방관만 하면서 보고 있기엔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배자 모임에 나가도 특별한 수가 없는 거 같았습니다.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일이 되는 것도 너무 늦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 거 같아 보여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힘든 상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주연씨의 얼굴에 순간 체념의 빛이 어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 명동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는 것도 성과가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싸움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사회엔 200여명이 넘는 수배자들이 있다. 또 그 수배자들의 가족들도 있다. 그들이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단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저기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도,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도 모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랬기 때문이다.

동생이 안쓰럽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난 설 연휴에 참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농성자들이 열심히 국보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국보철 문제가 사람

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또 다른 단체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동생이 하는 일이 힘들지만, 어려운 싸움이지만 정말 의미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잘 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연씨는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생이 이 싸움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싸움이 동생 개인에게도 뭔가 남는 싸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의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뭔가 발전하고 얻는 것이 있는 그런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씨는 힘있게 말을 맺었다.

지금 우리 사회엔 200여명이 넘는 수배자들이 있다. 또 그 수배자들의 가족들도 있다. 그들이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단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저기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도,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도 모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랬기 때문이다.

오랜 고통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봐도 별 수 없다는..., 이것이 운명이라는... 체념을 배우게 한다.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서린 슬

픔을 본다. 하지만 온갖 고통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바꿔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더 불어 자기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숭고하게까지 느껴진다.

명동에서 자신의 수배를 풀기 위해, 더불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며 투쟁하는 장기수배농성자들, 이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본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나태한 나, 부족한 나의 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우리 앞에, 옆에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이들 뿐이 아니다. 자유없는 어려운 수배상태에서도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언젠가 어느 수배자는 이런 말을 했다.

“몇 년의 수배생활 중 잠 한 번 편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때도 옆에 있는 아저씨가, 흠뻑 쳐다보기만 해도 놀라서 부라부라 몸을 씻고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수하여 감옥으로 갈까하는 유혹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감옥에선 발뻘고 잠은 잘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리하고 나오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수배라는 그늘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기에... 그것은 나만 편하고자 하는 길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월말 대 사면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이번 사면은 모든 수배자들의 수배가 풀리고 모든 양심수가 감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이 시대의 악법, 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에 그런 수치스런 법이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돌아오는 봄에는 수배해제가 되어 동진씨와 그 부모님 그리고 주연씨의 가슴에도 진정한 새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새 봄이 찾아오기를...

민기협 양심수후원회원 안 윤 정



국가보안법 정치수배자 이동진 씨.
(99년 경성대 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송환희망 장기구금 양심수 전향 무효 선언문

우리 민족은 외세와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맹목적인 대결을 강요당했고 심지어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 사업도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으로 지난 해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요청한 65명 중 63명만이 송환되었고 정순택, 정순덕 선생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취소를 선언했던 정순택, 정순덕 선생을 비롯한 엄혹한 군사독재시대 강압적으로 전향당한 우리들 장기구금 양심수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전향 자체가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가족이 있는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전향공작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이른바 좌익수 전원을 강제로라도 전향시킨다는 방침 아래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 등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강요한 만행이었습니다.

좁은 감방(0.75평) 안에 15명 이상을 잡아넣고 잠을 못 자게 하며 밧줄로 온 몸을 때려 멍이 들게 했으며 찬물고문, 손바닥 고문, 원산폭격, 엎어놓고 몽둥이로 때리기 고문, 고문틀에 반듯이 눕혀 밧줄로 묶고 두 손은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고 목에는 나무막대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천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덮어씌운 가운데 계속 물을 붓는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향공작에는 교무과장 강형철 교회사, 문승호, 교도관 정화

선, 백철과 고문자로는 강패로 복역 중인 정무정과 원삼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늘로 온 몸 찌르기, 운동, 목욕, 이발, 독서, 면회 금지, 쇠줄로 묶어 거꾸로 매달기, 주부식 감식 등 인간이 견디어낼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고문과 강제전향공작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며 그 중에 박용서, 최석기, 손윤규, 김용성, 변형만 선생 등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하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향공작만행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생존 자체가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향이라는 형식을 거쳤다고 해도 우리는 조국통일염원이나 정치적 신념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석방 뒤에도 사회안전법과 보안관찰법에 묶여 생각이나 행동의 제약을 받아와야 했으며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모델 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도는 위헌성 때문에 폐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은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사상양심의 자유, 거소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6.15남북공동선언시대, 남북은 민족통일에서 자주 원칙을, 통일방식에서 연방제를 지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인정,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북쪽은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함께 통일할 상대입니다. 따라서 남쪽도 북쪽도 모두 조국입니다. 수십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우리들이 이미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수십년 헤어졌던 혈육을 다시 만나는 일은 인도주의 문제이면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강제전향이 전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조건 없는 송환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1. 2. 6.

장기구금 양심수 송환희망자 일동

장기구금양심수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사이의 반북·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민족통일에서 자주적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통일방식에서 연합·연방제의 공통점을 지향하기로 함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존중하는 토대에서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확고한 바탕을 다져놓았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선언으로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면서 여러 형태의 당국자회담을 비롯한 많은 인적·물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동선언 세번째 항목인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있는 가족들의 상봉이 두차례 있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통일조국염원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이처럼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당국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안팎의 방해책동에 흔들림없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나아가 평화와 통일로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기구금양심수송환을 촉구한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계속사업과제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9.2 송환'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9년 사회안전법 폐기와 관련하여 풀려난 비전향장기수 102명 가운데 아직도 생사여부와 거소지를 알 수 없고, 송환의지를 밝히지 못한 이학근 노인 등 7명이 남아있다. 또한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비전향으로 출소한 사람가운데 감호처분 등을 피해왔던 송환희망자들이 있다. 이들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송환추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법무부와 통일부에 이들의 명단과 거소지 확인을 위한 행정자료공개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해놓은 바 있다. 자유의사에 따라 이분들도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 9·2 송환 이후 이미 통일부에 송환신청을 해온 분들이 있다.

둘째, 9·2 송환에서 제외된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비롯한 엄혹한 시대에 본의아니게 강제전향 당한 사람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이들의 송환문제이다.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도가 그 위험성 때문에 이미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시대의 강압에 의한 전향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순택, 정순덕 노인은 사상전향 취소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비전향장기수들과 오랫동안 공동체 성원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정순택, 정순덕 노인처럼 강제전향의 부당성을 말하며 확고한 송환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늘 또다시 장기구금양심수들이 강제전향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포로이고 정치공작 또는 안내원으로 남쪽에 왔던 고향이 북쪽이고 가족들 또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보안관찰법에 묶여 생각과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북쪽가족을 그리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 이들은 인도주의는 물론 인권차원에서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

셋째, 9·2송환으로 남쪽에 남겨진 가족들의 재결합문제이다. 송환추진위원회는 9.2 송환 당시 인도주의 정신으로 93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하고, 부부가 갈라지는 비극이 없도록 직계 가족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요청한 바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1차적 의미는 그들이 수십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향해왔던 신념의 세계로 가는 일이었다. 이러한 1차적 의미를 실현하는데 따르는 인도주의 문제도 당연히 함께 풀었어야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함께하는 문제는 인도주의일뿐 아니라 인륜의 문제이다. 이들 가족의 재결합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의 연장으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같은 송환운동은 궁극적으로 외세와 분단구조를 깨고 자주와 통일세상을 이루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이며 통일이전에라도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모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 실천기관으로 노력해온 통일부와 적십자사가 장기구금양심수 송환과 가족들의 재결합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1년 2월 6일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공동상임대표 권오현 김점명 문규현 이명남 성관

장기구금양심수 송환희망명단(1차분)

번호	나이	이름	생년월일	본적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소지	가족	체포일자	적용법규	형량	복역기간	석방일자	현주소
1	86세	고성화	1916년 08월 20일	제주 우도			1973년 03월 16일	국가보안법	무기	21년	1993년 03월 06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205
2	84세	김원철	1918년 10월 29일	평북 신의주		부인-조남송 자녀-용봉	1960년 04월	국가보안법		28년	1987년	대구사법보호소
3	83세	김기찬	1919년 04월 10일	충남 논산	청진시 서흥동	부인-이분선 자녀-김호	1958년 06월	국가보안법, 간첩죄	무기	21년	1978년 07월 23일	전북 익산시 영동동 692-1 다세대주택 201
4	81세	맹기남	1921년 07월 23일	함남 영흥	평양시 동구역	부인-남기순, 자녀-인섭, 인옥, 인순, 인실	1958년 8월 말	국가보안법	무기	31년	1988년 12월 22일	전북 익산시 주현동 174-4
5	81세	정순택	1921년 05월 08일	충북 진천	평양시 중구 남산동	부인-최복섭, 자녀-태주, 태삼, 태성, 태건	1958년 07월 26일	국가보안법	무기 추가-10년	32년	1989년 12월 24일	충북 음성군 군왕면 부곡리 송림빌라 니동 7층 202호
6	79세	천광선	1923년 05월 13일	경북 상주	평양시 남구역 역전동 철도관서	부인-전정림 자녀-화진, 화숙	1980년 10월 12일	국가보안법	무기	14년	1993년 05월 27일	경남 김해시 삼당동 동상아파트 508동 501호
7	79세	배동준	1923년 03월 27일	경북 봉화	평양시 서구역 용복동 28	부인-김영분 자녀-이름모름	1957년 08월	국가보안법	15년	29년	1989년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2리
8	77세	김동섭	1925년 11월 05일	소련 연해주	함남 안변군 신고산면 위남리		1952년 02월	전시하의 비상조치령	무기	21년	1972년 04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창1리 521-9번지
9	77세	문상봉	1925년 12월 06일	평북 용천	강원도 고성군 조곡리 10번	부인-장영복 자녀-정애, 정옥	1960년 07월	국가보안법	무기	28년	1987년 04월 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원산동 113-1
10	75세	김대호	1929년 06월 30일	경남 고성			1950년 08월 경	전시하의 비상조치령	무기	15년	1964년 12월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541-5 세영주택 104-301
11	75세	김태수	1927년 12월 15일	경북 선산			1952년 02월 19일	국가보안법, 특별조치법	무기 4.19뒤 15년 감형	16년	1967년 08월 07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주공아파트 2단지 203-309

번호	나이	이름	생년월일	본적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소지	가족	체포일자	적용법규	형량	복역기간	석방일자	현주소
12	74세	이화천	1928년 02월 25일	평북 용천	평북 용천 신도(섬)	부모-이용화, 선우칠화 형제-학봉, 학선	1952년 02월	국방경비법 32조	20년 4년추가	20년	1980년 12월	대구시 칠곡3동 414-7
13	74세	서옥렬	1928년 12월 25일	전남 신안	평양시 선교구역 신리동 신리아파트	부인-강순성 자녀-태길, 태현	1961년 09월 13일	국가보안법	무기	30년	1990년 09월 29일	서울시 관악구 동천6동 1690-141 '만남의집'
14	74세	유영희	1928년 10월 30일	전북 김제	전북 김제군 봉남면 대송3리	누님과 생질(복남)	1954년 04월 24일	국가보안법	무기	30년	1983년 02월	전북 익산시 원불교 관리 자선원
15	73세	허찬형	1929년 04월 16일	평북 삭주	평북 삭주군 삭주면 남평리	부모-허용주 형님-찬화 조카-필선	1952년 01월 05일	전쟁포로	15년	17년	1971년	대전시 중구 목동 2-60
16	73세	김경선	1929년	함남 신포	강원도 고성군 조곡리	부인-정정금 자녀-정남, 승재	1960년 07월 17일	국가보안법	무기	28년	1987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원암수관
17	73세	김중하	1929년 09월 25일	평북 영변	평북 영변군 서림면 서림리	모친-홍인표 형제-중호, 영식, 현숙	1955년 01월 02일	국방경비법	무기 4.19뒤에 20년 감형	29년	1983년 06월 03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 455 문호아파트 A동 209호
18	72세	이찬근	1930년 02월 11일	함북 영천	함북 화성군 화성읍 156번지 (조카있음)	부모님, 형님, 여동생 중국에 있음	1951년 12월 21일	특별조치법 전쟁포로	무기 4.19뒤 15년 감형	19년	1969년 07월 27일	대전시 중구 목동 77-1
19	72세	오기태 (정재필)	1930년 05월 11일	함북 원성	함북 원성군 남양읍	부인-김의식 자녀-춘자, 정자, 정일	1969년 10월 01일	국가보안법	무기	21년	1999년 12월 24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주공아파트 405동 1103호
20	71세	박수분	1931년 04월 01일	경남 하동		남편-최성원 자녀-해수, 은하	1954년 01월 14일	국방경비법	15년	11년	1965년 03월 05일	부산시 수영구 광한2동 19-1 협진태양맨션 409호
21	71세	서순정	1931년 01월 14일	전남 순천			1954년 01년 10일	국방경비법 32조	무기, 4.19뒤 20년 감형	21년	1974년 04월 17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120-14
22	70세	박창수	1932년 03월 20일	평남 강서	황남 해주시 용당동	부모-박채훈, 김치동 부인-김권우 자녀-경남, 영남	1962년 06월 08일	국가보안법	무기	24년	1985년 08월 14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23-15

번호	나이	이름	생년월일	본적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소지	가족	체포일자	적용법규	형량	복역기간	석방일자	현주소
23	69세	정순덕	1933년 06월 20일	경남 산청	경남 산청군 삼장면 매월리		1963년 11월 11일	국가보안법	무기	23년	1985년 08월 14일	낙성대 '만남의집'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505호)
24	69세	강 담	1933년 10월 12일	함남 흥천	함남 흥천군 상량리 강원도 통천군 치공리	부인-박원옥 자녀-춘식, 절모 형님들	1965년 03월	국가보안법	무기	24년	1988년 12월 21일	서울 강서구 기암동 1478 도시개발A 412동 508호
25	69세	박중권	1933년 03월 14일	중국 길림	평양시	부인-노인숙 자녀-옥희	1959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	무기	35년	1993년 12월 2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9-4 '한백의집'
26	68세	김상수	1934년 09월 29일	경북 경주	경북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9		1958년	국방경비법	20년 4.19뒤 감형	18년	1975년 01월 19일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987-1 24동 2번
27	68세	김영식	1934년 04월 07일	강원 판교	강원도 고성군 상북리 101	부모-김동학, 정부선 부인-시은옥 자녀-현일, 경자	1962년 03월	국가보안법	무기	27년	1988년 12월 26일	전주 완산동 교백교회
28	67세	박희성	1935년 03월 24일	평북 박천	황해남도 해주시 용담동	부모-서병실 형제-희열, 희선	1962년 06월 04일	국가보안법	무기	17년	1988년 12월 21일	서울 성북구 미아8동 738-40
29	67세	이준원	1935년 01월 16일	함남 함주	함남 함주군 하기치면 은봉리	부모-김병녀 동생들	1963년 05월 30일	반공법	15년	17년	1979년 01월 25일	대구 남구 대명10동 삼화A1동301호 1593-14 5/3
30	57세	이광근	1945년 10월 17일	평양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부모-이원호, 채병숙 누나-이인옥	1967년 01월 21일	국가보안법	무기	22년	1988년 12월 21일	광주시 서구 양일동 302-13
31	76세	문일승	1926년 07월 07일	함남 장진	함남 함주군 주부면 부민리	부모-문달호, 김금녀 동생-신덕	1954년 02월 03일	국방경비법 32조	포로수용소 2년, 5년	7년	1961년 06월 15일	전북 전주시 금암2동 1585-9
32	73세	최일현	1929년 09월 25일	함북 경원	함북 경원군 안동면 상동	부인-명재옥 자녀-명관	1958년	국가보안법	무기			대전시 중구 선호동 367-1 평화빌리지 102호
33	72세	박창덕	1930년 01월 25일	전남 곡성			1952년 03월 27일	전시하의 비상 조치령		8년	1959년 02월 09일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288호



김종호 걸어다니실 수 있게 건강좋으심. 눈 수술하셨고 시 쓰시며 잘 지내심, 가족 모두 만나 잘 지내심, 한기명, 박은경의 여러분께 안부, 이은하님께 안부,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에 안부.

김익진 건강하심. 동생에게 안부, 후원회여러분께 안부, 김종삼의 여러분, 이정태, 조은미, 정현경, 이은하의 여러분께 안부.

김영만 건강하심. 할머니께 안부, 강순정 선생의 여러분께, 따님에게 안부.

김영태 건강하심. 후원회원 여러분께 안부, 윤영림님과 따님, 박은희, 은정님께 안부.

양정호 건강하심. 아드님 따님 모두 대학나와. 양심수후원회, 갈현동후원회 여러분께 안부, 한울타리 사장님께 안부.

함세환 건강하심. 결혼하심, 대전민가협회장, 임나리 간사의 여러분께 안부.

이두균 건강하심. 부인에게 안부, 여러 선생님들, 어머님들, 후원회원에 안부.

윤희보 건강하심. 사모님, 이모님, 따님에 안부,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안부.

김선명 건강하심. 결혼하셨음. 부인 조정숙 42세, 김호현의 움서룡여러분께 안부, 김재원님께 안부, 후원회원, 민가협어머님께 안부, 이종환 선생님께서 이정규님께 금반지 준비했다고.

신광수 건강하심. 따님3 아드님1 모두 결혼하심. 후원회원 여러분께 안부, 여러 선생님들께 안부

오형식 건강하심. 어머님 79세로 돌아가심. 동생, 제수씨에 안부, 한지훈, 한백교회 여러분께 안부, 민가협어머님, 양심수후원회원에 안부

김석형 외출 때 휠체어를 이용하시지만 건강하심. 민가협어머님, 양심수후원회원에 안부, 권영길, 단병호, 박순경, 이갑용, 조영걸, 이종린, 신창균, 오종렬, 임기란, 고난, 동대문교회, 유가협 여러분, 4월혁명회 여러분, 김수룡, 정순택, 정순덕, 박용길, 민가협 여러분, 한지

은, 푸른영상, 서준식, 임종석, 김근태, 진관, 황영태, 장기표의 여러분께 안부.

최선묵 건강하심. 따님(최정인)에 안부, 대전 유락준 신부님, 철도노조 임병인님, 탕계원 정미아, 대전 한양대 동우회 여러분, 그의 후원회 여러분.

조창손 건강하심. 후원회 여러분들께 안부, 운영회원 여러분-김지영, 김호현, 정봉수, 송경용 신부님, 김동원님, 희망교회 정춘우 목사, 김선화의 여러분, 움서룡 여러분께 안부, 선생님 가족은 따님 직장에, 외손자2 외손녀2 아드님 사위 모두 직장에, 손녀3 손자1 일곱식구 큰 집에서 함께 (120평), 김영식 선생님께 안부.

김인서 휠체어로 나오심. 건강 좋아지셨음. 큰 따님(외국어대 강좌장)님이 모시고 나오셨음. 반갑게 인사-그동안 남쪽에서 아버님을 도와주셨고 송환에 애써 주신분들께 감사말씀.

김은환 건강하심. 부인 아드님1 따님2 평양에서 함께 사심. 자녀분3 모두 상대 나오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안부, 한지은 선생의 과천에 계신 여러분, 조



카님께 안부.

이공순 건강하심. 인천형님께 안부, 류춘도, 이미나님께 안부, 따님들 모두 좋은 직장에 손주2 있음. 그동안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 이해경씨에 안부.

한춘의 건강하심. 가족 만나지 못하심. 봉사원이 돌보아주심.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안부, 이미순씨에 안부.

김동기 건강하심. 부인 돌아가시고 아드님37세 인민경제대학에, 며느리 직장에, 세 분이 함께 지내심. 함남 단천고향에 다녀오심. 부인 시당에서 묘비 세워줌. 친척과 형님 아들 4명, 평양에 2사람. 광주 라인제과사장. 장진규, 오경민(통일의 집 도운분), 김성묵 사장 등 안부, 인천 최형식 기자, 서울TV 황승환 PD, 서울MBC 조충남, 김동원(푸른영상), 시사저널 김훈, 동아일보 김춘석 논설위원, 양은찬, 장두석, 문병란, 이갑용, 윤영민, 김대현(민주노총), 성염교수, 정근식(전남대),



북한산을 다녀와서

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있는 한 조국통일은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소식지 지면을 빌어 신사년의 늦은 새해 인사를 여쭙습니다만 이 글이 선생님들께 전해질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이렇게 쓰다보니 공허한 느낌마저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시기전에 누누히 강조하셨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도록 남과 북에서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의 변화 발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자유왕래가, 나아가서 조국통일이 우리 손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추위도 곧 물러가고 새봄이 올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함께 손잡고 남녘 땅 여기저기 제주도까지 같이 여행했듯이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까지 모두 즐거운 통일노래 부르며 열썬안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통일의 화신이신 선생님.

더욱 기쁜 얼굴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오리라 믿습니다.

지면 관계로 거명하지 못한 선생님들 모두 한 분 한 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 호 현 올림

• 김호현님은 몸시롱감시롱 회원이자, 낙성대 '만남의 집'을 자주 찾아뵈었던 민가협 양심수후 원회 운영위원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려야 하겠군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세이구요, 이창희 선배님 학교후배입니다. 산행은 11월 도봉산을 함께 갔었고 이번이 2번째구요.

1월21일 아침 아홉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프시다고 아침 좀 하고 나가라지 않겠어요?

“이를 어찌지 늦겠는데... 가지 말까?”

잠시동안의 망설임뒤에 부랴부랴 밥하고 콩나물국 끓이고 택시를 타고 20분쯤 늦게 약속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이것저것 놓고온 것도 있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기분으로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겨울 산을 오른 것이 몇 년만이지. 더구나 이렇게 눈썹인 산에.” 그동안 내가 각박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때의 산행에서도 느꼈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렇



지도 않던 것이 산에만 오면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중간 중간 쉬면서 먹는 꿀, 점심 그리고 소주한 잔...(적다보니 다 먹는거네...).

2시간쯤 산에 오르다가 일선사에 도착했고 점심을 그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싸운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밥을 주더군요. 밥에 고추장과 나물을 넣고 쓱쓱 비벼 한 손가락 입에 넣고 콩비지 찌개를 먹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이창희님, 이정태님, 이득행님)들을 물리치고 조금이라도 많이 먹기 위해 더욱더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정신없이 점심을 먹고 다시 보현봉에 오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휴년제로 보현봉 가는 길이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덮인 산과 도시의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이었습니다.

경치를 감탄하며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갑자기 커다란 눈덩이가 저에게 날아오더군요.

“퍽-아야”

그때부터 눈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숙언니, 승미언니 그리고 저는 꼼짝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그래, 딱 한번만 때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누워있는 선배님 얼굴에 눈 한 덩이를 비볐는데 눈을 펴운 자리에 있는 눈이 노랑지 뿔니까.

“어 눈이 왜 노랑지? 이거 오줌아니야?”

“아니예요 선배님. 그건... 아악 사 람살려...”

선배님은 절 눈에다 막무가내로 굴리며 눈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아속한 선배님, 후배가 열대 맛고 딱 한번 장난친걸 가지고 여리고 여린 후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니, 흑흑흑.).

여하튼 이렇게 오랜만에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타며 신나게 내려오다

가 중간에 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모두 아는 사이일텐데 단 한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분을 위해 모두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민련 이종린의장님의 몇 십년전의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속에서 설악산을 올랐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깊었고 우리들처럼 서로 장난도 치시고 농담도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오신 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어서 좋은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눈 위에서 합동으로 새배를 드리고 다시 산을 내려온 다음 명동성당에 있는 정치수배해제농성단의 농성에 결합을 했습니다. 모두들 산에 갔다와서 지쳤을 텐데 어느 때 보다도 힘차게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농성이 너무 늦게 끝나서 선생님들이 뒤통이에 결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느 때보다도 보람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번의 산행이 모두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음 산행이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산행에서는 양심수후원회 회원분들을 많이 많이 뵈었으면 합니다. 꼭 오세용--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 한 수 정

2월

산행 안내

어느 해보다 추운 날씨와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봄이 왔지만 흰 눈 덮은 거울산 정취로 남아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함께 하며 북한산에 오릅니다.

언 제: 2001. 2. 25(일) 오전10시

모이는 곳: 우이동 그린파크 앞

갖출 것: 따뜻한 도시락(반드시 준비하십시오), 회비 3000원, 아이젠
대중교통 : 6, 6-1, 28, 28-1, 23, 725

겨울의 싸움은 봄을 부르는 것입니다

- 대구옥의 명기 형에게

올 겨울 참 많이 추웠죠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눈이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안에선 더 힘들었겠죠
혹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발끝을 아리게 하는 동상은 걸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추우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풍년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겨울이
너무나 깊었고, 너무나 추웠고
그 추위의 폭설로 모든 것이 다 덮혀서 사라질 것 같았지만
이제 봄의 길목에서
그런 것들이 더욱 커다란 통일의 풍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형,
여기보다 그 안에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래도 웃을 수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웃음도 있고 보람도 있고 희망도 있고...

몇 해전에 신창균 선생님의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이라는
구절이 있더라구요

우리의 반쪽 저편이 물난리로 한참 어려울 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했대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 분단의 계절을 건너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형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것은
스스로 분단의 강을 건너가는 다리의 버팀목이 되어
그 시린 강에 발을 담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 분단의 시절,
이 분단의 계절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때문에 이 분단의 시절에 받는 모든 고통은
보람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형,
형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분단의 겨울을
통일의 봄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을 거예요
아직 형의 자리는 차고 시리지만
봄이 머지않아 그 후미지고 그늘진 곳까지 퍼져나갈 거예요
겨울의 싸움은 봄을 부르는 것이니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형의 길은,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형의 길은
칠천만 겨레면 누구나 가야 하는 만민의 길이 될 거예요
흐를수록 나날이 깊어지고 넉넉해지는 강물처럼 말이에요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아빠지께
아빠, 정연이가 벌써 12살이 됐어요. 참 시간이
빨리가요. 아버지는 대보름날 땅콩과 호두 못 두셨죠.
우리 인제쯤 땅콩이랑 호두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연이가 계획을
해서 아버지를 특별한 날 아니면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아빠 사진 보면서 절대 외로
워 하지 않아요. 정연이 그때보다 씩씩해졌죠.
아빠 나 아빠 닮아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조금
만 울어요. 아버지 착하죠. 아빠 나 좋은 재미 생활이
생겨서 심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안 심심해요?
아빠 그곳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신나게 놀
아요. 정연이가 학교 생활 덕분에 바빠니까 아빠
생각에 머물러할 시간도 없어요. 차라리 바빠서 좋아
요. 나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싫어요. 아니 미워요.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를 빼앗다니 대수롭지 않을거야
이럴때는 아버지가 원망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전
아니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아빠다운 선택이
있어요. 아빠 만약 2시간 동안 있게 되더라도 꼭꼭하게
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녜요. 아시죠.
아빠 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나랑 생각이 같해요.
아빠 빨리 나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2001년 2월 8일

-정연 올림-

• 이 글은 소위 민혁명 사건으로 8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하영옥님의 따님이 감옥의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구나.

호소문

추운 날씨에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하여 이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곳에서 고생하는 학생들과 민가협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전 고려대 동아리연합회장)의 엄마 홍동자입니다. 저는 아들과 생이별한지 6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의 애타는 마음을 편지로나마 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올 같이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아빠와 엄마, 효은이도 건강히 잘 있단다.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구나.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었구나.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갔구나.

어디에서 밥은 굶지 않고 옷은 계절에 맞게 입고 있는지 몸은 건강하느냐. 너의 옷은 계절마다 사두었는데 전할 길이 없어서 애태우고 있단다. 이렇게나마 서신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긴 6년이라는 세월동안 너무나 많이 참고 견디면서 살았구나. 그 많은 고통, 괴로움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밤이며 밤마다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렸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집으로 와서 온 식구와 오순도순 모여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을까. 이 엄마의 소원이자 바램이란다. 젊은 노숙자들을 보면 유심히 봐진단다. 혹시라도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객지 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엄마는 밤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자

지 못한다. 너는 유달리 생선을 좋아했는데... 흰 쌀밥에 우리 생선 구워 맛있게 먹자구나. 제발 내 곁으로 돌아오너라... 내 아들이야... 너무 보고 싶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세월만 흐르고 또 지나갔구나.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한없는 기다림, 또 기다림. 많은 수배자의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늙어가고 있구나.

이 한맺힌 서러움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이야, 그간 6년동안 너의 소식이 없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었다. 하루빨리 구각보안법이 철폐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수배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자.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꼭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기다리마...

항상 건강하고 끼니 굶지 말아라. 너무나 보고 싶다. 널 언제나 사랑한다. 부디 조심하여라.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구나. 이만 줄이마.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엄마가

• 이 글은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전 고려대 동아리연합회장씨의 어머니 홍동자님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 01 ♣ 3대 개혁 입법 촉구 명동성당 농성자들과 민가협, 범민련, 전국여합, 자통협, 천정련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신년 하례식을 함.
- ♣ 박용길 장로님, 권낙기 선생 어머니등 어른들께 이창희 수습간사와 함께 새해 세배 다짐.
-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2000년)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 항의, 장안동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앞에서 동국대학생들과 함께 항의 집회, 민가협·유가협 대표단·임기란, 이영자, 권오현 등
- ♣ 양심수 후원회원 한희숙씨, 민가협 대표로 3대 개혁 단식 농성 참여
- 02 ♣ 과천 '한백의 집'에 계신 박종린 선생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림. (고현희, 권오현)
- 03 ♣ 양심수 41 명에게 연하장 발송
향린교회에서 인권단체 대표자회의, 9일까지 농성 계속
과 정치권에 대한 폐지안 촉구 결의
- 04 ♣ 민가협 361회 목요집회 - 여는말(임기란 상임의장),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 연행규탄, 장진숙 어머니 사례, 명동성당 농성팀, 3대 개혁 입법 투쟁 사례 등
- ♣ 3대 개혁 입법 촉구 명동성당 농성단 8시 집회, 후원회원들과 함께 하다.
- ♣ 지난해 9월 2일 복벽으로 가신 아드님(신인영 선생님) 만나시길 열심히 기다리고 계신 고봉희 할머니를 찾아 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내온 아드님 편지를 몇번이고 읽으시면서 하루 바빠 아드님과 며느님, 손주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효진 회원이 함께 함.
- 05 ♣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인권사회연대 대표단 민주당사 항의 방문. 이종걸 인권위원장 만나 국보법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 표명 촉구
- ♣ 기독교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 주관으로 '신년하례식'을 갖다.
- ♣ 명동성당 노상 단식 농성 8시 집회 참석
- ♣ 낙성대 '만남의 집' 보일러 점검
- 06 ♣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해제 농성단과 양심수후원 회원이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토요캠페인, 명당성당 들머리에서 동국대, 홍익대, 고려대, 건국대, 단국대생과 구로청년회 등 100여명이 모여 진행 - 송창하, 이승미, 변의숙, 이창희, 한수정, 이정태 외 여러 후원회원 함께 함.
- 07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서울역 광장에서 10km 눈보라치는 가운데 500여명과 함께 진행 - 명동성당까지 행진, 명동 농성단과 함께 정리집회.
- ♣ 임방규 선생님을 비롯한 통일광장 선생님들 3대 개혁 입법 투쟁. 명동성당 단식 농성단에 동조, 하루 단식 농성 참여하심.

- 09 ♣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을 대표하는 142명은 대통령에게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문정현·김승훈 신부님, 홍근수 목사님, 영진스님, 이정택 교무 등 120여명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명동성당 개혁입법 농성단과 함께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종교인 기원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
-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대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자 기자회견 - 단식농성단은 농성을 마치고, 국회의사단앞에서 항의시위
- ♣ 이른바 민혁당 사건 관련 박정훈, 한용진, 최진수, 박종석씨 증인신문공판이 서울지법합의(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김영환씨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 - 이날 부산, 울산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방청하고 재판이 끝난 다음 양심수배운동투쟁과 규탄집회를 가짐. 서경순 민가협 전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회장,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 권오현 미낙협 양심수후원회장 등 규탄연설.
- ♣ 양심수 후원회 신년하례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박용길, 김승훈 지도위원님과 김규철, 노중선, 진관 스님 등 감사님, 김정숙, 서경순 전 민가협 상임의장님과 위영석 어머니, 백주선 어머니, 정병도 어머니 등 민가협 어머니들, 그리고 김지영, 이기욱, 이정규, 김호현 운영위원, 이덕우 변호사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김승훈 신부님께서 마련해주신 국과 음식을 들며 양심수후원회 새해 사업전망 등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0 ♣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총회가 창신동 한울삼에서 열렸습니다.
- 11 ♣ 민가협 362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상임의장,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된 상명대(천안) 이은경학생 아버지 호소문, 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 어머니 호소문, 명동성당 3대개혁입법 촉구농성단 사례, 경희대 민주노동당 강철구 재판사례 등.
- 12 ♣ 서초동 민변회의실에서 민가협, 범남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인개련,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대표회의를 갖고 전반적 개혁입법관철을 위한 의견나눔, 특히 2월부터 3대개혁입법 실현을 위한 투쟁 계획 협의.
- ♣ 서울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 한용진씨 등 재판속개, 김영환씨의 증인신문이 있었으나 김영환씨가 강제출두에 항의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에 아느냐 없다며 증언거부.
- ♣ 서울지법 합의23부 심리로 지난 해 총선연대 활동과 관련 박원순, 최열, 지은희씨 등 총선연대 간부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직접 심문.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만행 한미공동조사결과 미국은 노근리학살을 인정했으나 지휘계통의 사격명령에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절박한 전쟁초기 수세적 전투상황에서 철수중인 미군의 수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했다'고 얼버무리고 있음.

1987.1.14일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으로 죽게했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본실 509호실에서 열사의 14주기 위령제가 열렸음. 열사의 숨진 현장을 찾은 박정기 유가족회장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양산통도사 성리암 주지 도승스님들과 함께 열사의 원혼을 달랬음.

13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농성단 토요캠페인, 민가협, 구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양심수후원회원들과 함께 캠페인과 서명운동, 정기집회 등을 진행, 윤기진 7기 한총련의장 아버지 편지낭독 등이 있었음. 한희숙, 이승미, 이창희, 김숙희, 이득행, 이정태, 변의숙, 송창학, 주경림, 신현익 회원 등 함께 함.

14 고 박종철 열사 14주기 추모제가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서울대 열사추모비 앞에서 유족들과 각계 대표들, 학생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있었고, 오후에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묘소참배와 추모식이 있었음.

15 서울지법 8단독(배준현 판사) 심리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의 '김정일의 통일전략'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공판.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 농성단과 대책위원회 주선 각계대표 간담회, 민가협, 유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자통협, 민주노동당,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청년단체 대표들 참가. 농성단의 노상농성계획 설명을 듣고 18일부터 기자회견과 농성에 들어갈 것에 대해 의견모음.

16 SOFA전면개정 촉구 미대사관 앞 결의대회에 참여했던 문정현 상임대표등 50여명을 경찰 닭창차에 강제로 태워 탑골공원, 사직공원 앞 등 5곳에 분산하여 신고 다니며 불법적인 집회방해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문정현신부님께서 갈비뼈가 금이 가는 증상을 입었음, 경찰에 엄중 항의함.

집권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교차표결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17 '후원회소식' 발송준비, 이정태, 한수정, 조경래, 변의숙, 김민정, 이창희 등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과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아무개씨가 '상속받은 땅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로 생긴 재산에 대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결정 내림.

지난해 9.2 북녘으로 가신 윤희보 선생님께서

애, 박순애 선생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두분 모두 나이가 많으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어 강추위속에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18 농성 248일째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은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폐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노상농성투쟁에 들어가다. 이번 농성과 관련 정치수배대책위원회와 민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민자통, 통일광장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배석한 가운데 농성단은 농성선포와 기자회견을 갖고 모의감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하루감옥체험을 통한 지지농성에 이종린 범민련의장,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등이 참여했고 양심수후원회 한희숙 회원은 첫날부터 농성주최로 참여.

민가협 363회 목요일집회, 여는말-임기란 상임의장님, 장창준 어머니의 감옥에 있는 아드님에게 보내는 편지, 동국대 김호중 학생 구속사려-김호중 어머니, 명동성당 정치수배자 진채영 편지 낭독 등.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감독 특별전 '상계동에서 평양까지'가 광화문 홍콩생명빌딩 지하2층 아트큐브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림. 마지막 날 이정태, 신현익, 이창희 함께 함.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7주기 추모공연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가 민가협, 유가협, 장기구금 양심수, 각계각층 인사와 청년학생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성황리에 열림.

19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2000년 사업평가와 3대개혁입법 2월투쟁 계획안 등 협의, 통과시킴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범청학련 신년하례식'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주관으로 열림. 범남본, 전국연합, 민가협, 통일광장, 청년활동가들이 함께 하여 2000년 활동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눔.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신 정순덕 회장님께 후원회원들 문병, 박인석, 김현애, 이승미, 황은경 회원들이 함께 함.

민가협과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회원들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방문, 16일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집회를 경찰이 강제진압해산시킨데 대해 강력 항의.

20 종묘공원에서 서총련, 전민특위, SOFA 전면개정, 미군국제폭격장 대책위 등 공동주최로 'SOFA전면 재협상, 노근리 양민학살재조사 촉구 미국규탄대회'를 갖고 명동까지 행진. 명동4거리에서 경찰의 봉쇄로 명동성당앞 들머리까지는 행진하지 못하고 정리집회함.

2000년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

행과 관련, 서부서방문 강력항의와 즉각석방촉구. 김규철, 김한덕, 권오현 등 명지대생들과 함께.

- ☞ 정치수배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원이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구로청년회 등 청년단체와 서울대생 등 청년학생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계속 농성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한희숙회원을 비롯, 이득행, 신현익, 박인석, 변의숙, 이승미, 이정태, 김현애, 이창희, 주경림, 정형근, 조정래, 노혁, 송창학 회원 등,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원 2명, 서울대생, 구로청년회, 애국한양청년회 등과 평가와 뒷풀이.

- 21 ☞ 양심수후원회 1월산행. 평창동 북악파크호텔앞에서-매표소-일선사에 오르는 길, 많이 쌓인 흰 눈을 밟으며 상쾌한 산행. 일선사에서 제공한 공양을 들고 형제봉능선을 거쳐 국민대앞으로 내려옴. 산행참가회원 모두는 명동성당 노상농성장에 들려 하루감옥체험, 국가보안법 폐지캠페인,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 함께 하며 MBC 화제집중 촬영에도 참여. 6시 촛불정리집회로 평가와 뒷풀이- 구로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서울대생 등 함께. 이정태, 송창학, 이창희, 한수정, 이득행, 김교영, 이종린, 유기진, 권주환, 이승미, 변숙현, 변의숙, 고혜경, 유종인, 김장현, 김수룡, 신현익, 김재선, 이혜림, 권오현 등이 함께 함.

- ☞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0~80년대 흑독한 전향공작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손원규, 변형만, 김용성, 박용서, 최석기 씨 등 5명을 비롯해 75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

- 22 ☞ 이현근, 김혜순 회원의 어머니(시아머님)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투병해오시던 중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용인 장례식장에 모신 빈소에는 음식물·감시물 회원들이 달려와 밤샘을 하고 발인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고인은 용인시 남사면 선영에 모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3 ☞ 2001년 1.2일 현재 구속된 양심수 78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되어있는 97년 남총련의장 정의찬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홍성교도소에서 면회하였습니다. 정의찬 학생은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원들께 새해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진재영, 이동진 학생 등 정치수배학생들에게도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 24 ☞ 민족전통명절 '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정치수배농성단의 노상농성이 계속되고 한희숙, 이창희, 이정태, 한수정, 송창학 회원 등이 함께 함.

- 25 ☞ 양심수후원회원들이 신인영선생 어머니(고봉희 할머니)와 권낙기 선생 어머니, 안학섭 선생님, 박종린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들께 명절인사와 권낙기 선생님 사모님 이옥순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성효진, 양계

숙, 이득행, 이창희, 한수정, 이정태, 이승미 회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 ☞ 명동성당정치수배해제 등 노상농성단과 양심수후원회, 구로청년회, 애국한양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등 촛불집회와 평가회를 가짐.

- 26 ☞ 말지를 양심수 4명에게 보냄.

- ☞ 임기란 상임의장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박용길 장로님(공동의장)께 설명절 인사드립니다.

- ☞ 이른바 민혁당 사건 양심수가족들 명동성당 농성장 지지방문, 서로 설명절인사를 나누고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투쟁 결의표명.

- ☞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 농성단, 하루감옥체험 지지참석자 등 8시 촛불집회

- ☞ 애국열사 김양무선생 1주기 추모식이 망울동 묘소에서 추모사업회주최로 각계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가운데 치루어지다.

- 27 ☞ 인천나사렛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문병. 왼쪽 마비된 팔·다리 움직임 많이 좋아졌음. 4월혁명



회 황건 상임대표가 밖에 모시고 나와 점심식사 대접, 이강일 원장 찾아 뵙고 설명절 인사를 드림. 이정태회원 함께 함.

- ☞ 국가보안법폐지 정치수배해제 명동성당농성단과 함께 하는 토요캠페인, 양심수후원회, 구로청년회, 동대문청년노회, 나라사랑청년회, 소위 민혁당사건 가족들 함께 8시 촛불집회를 마치고 토요캠페인과 노상농성 10일째 평가모임을 갖다.

- ☞ 토요집회에 함께 한 양심수후원회들 함께 식사하며 13차 총회를 앞둔 회원



활성화과제 등의건나눔. 한희숙, 양계숙, 김민정, 황양미, 심주이, 한수정, 강화정, 이창희, 이정태, 신현익, 송창학, 이승미, 변의숙, 이득행, 김호현 회원 등이 함께 함.

- ☞ 용산 미8군기지 정문앞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 등 '미군기지 폐쇄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결의집회' 열다.

- 28 ☞ 후원회원들 명동성당 정치수배노상농성단 지지방문, 8시 정리집회 함께 함.

29 ♣ 전주교백교회에서 27년 옥고를 치루고 나오신 김영식 선생님이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공작 사례를 말하며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강제된 전향은 무효이며 가족이 있는 고향 복원으로 송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전북종교인협의회 주관 정상덕 교무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불교 수경, 경진스님, 전주교 문규현, 최조수 신부님, 원불교 이제성 교구장님, 개신교 한상렬, 김경섭 목사님의 천도교 이우원님 등이 함께 하고 장명수 우석대총장, 양순찬 정북대총장, 천승훈 원광대총장, 이강실 전북연합회장, 오경숙 민가협 회장 등 80여명이 함께 함.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원 회장은 지난 해 9월2일 63명 비전향장기수 송환경과보고와 김영식 선생님을 비롯한 장기구금양심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함.

1999년 북경민족대토론회에 참석했다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년6월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복역중인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이성우의장을 면회하다. 이성우의장은 민가협어머니들과 후원회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하며 정치수배해제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단에게 격려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음.

'김정일의 통일전략'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죄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살림터출판사 송영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나(19일) 한남동에서 석방환영모임이 있어 함께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3.15일 300

명씩 서신교환할 것과 3.26일 3차 이산가족상봉합의함. 그러나 장기구금양심수 송환과 가족들 송환을 요구하는 복측요구는 합의이루지 못함.

30 ♣ 민가협 운영위원회- 3대개혁입법 2월투쟁, 16차 민가협 정기총회준비위원회 구성문제 등 협의.

국가보안법폐지 정치수배해제 등 명동성당 노상농성단과 인권·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갖고 모의감옥 하루체험, 서명운동 등 사회단체 적극 참여, 양심수석방·정치수배해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결의.

서울지검(지검장 김작영)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서경원 전의원을 고문·구타하고 김대중대통령의 공작금 1만달러수수와 '빨치산수법' 등 발언과 관련, 고문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31 ♣ 양심수 85명에게 20,000원 씩 영치금 보냄.

고성화, 최상원, 박종린, 하태연, 서옥렬 선생님께 지원금 드림

양심수 가족에게 지원금 드림

정치수배농성단에게 지원금 전함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판사는 1994~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집회주도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에게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차 개입금지위반등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회에서 후원금으로 159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소식

• 1월 22일 이현근, 김혜순 회원의 어머니(시아머니)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투병해오시던 중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용인 장례식장에 모신 빈소에는 음식물·감시물 회원들이 달려와 밤샘을 하고 발인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고인은 용인시 남사면 선영에 모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워싱턴 에덴장로교회에서 후원금으로 159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드립니다.

항상 소식지 편집일에 애써 주셨던 여혜정 회원님께서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예전 을지로3가에서 바로 길 건너편으로 옮겨 예전처럼 을지로3가역에서 내려서 을지로3가 파출소쪽으로 올라와 뒷골목 매일온천 목욕탕 옆 한도빌딩 304호입니다.

(전화번호: 2272-1338)

